

완주군, 청년창업 지원교육

크리에이티브 스타트 사업... 35세 이하 예비창업자 22일까지 모집

완주군이 창업 독려와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청년창업가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8일 완주군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 확보하고 지역 내 예비창업자 교육훈련 및 초기 사업비 지원 통한 성공적 창업 실현을 목표로, (사)한국평생교육원(RD진흥협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완주 크리에이티브 스타트(creative start)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 크리에이티브 스타트 청년창업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

관 이전에 따른 지역인구 증가, 혁신도시 내 민간·공공 비즈니스 센터 신설 등 창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청년창업의 거점환경 조성을 위한 안주 맞춤형 창업육성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자는 완주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서, 창업의 출발을 함께 할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업가 정신·세무·법률·특허 등 실전지식의 활용, 사업자금 확보, 실전사업계획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초기 교육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투자유치과정의 이해, 브랜드플랫폼 실적 작성, 최고경영자를 위한 조직경영론, 스마트기업 시스템 구축 등의 성장교육도 진행된다.

특히 교육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업 평가를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의 초기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22일까지며, 교육장소는 이서면 혁신도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공동체협력과 또는 이서 혁신도시 패스트스타센터(☎1544-674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세금고민, 다 털어 놓으세요

진안군, '마을세무사 제도' 큰 호응

진안군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2년째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북전주세무사협의회 소속 최정근 세무사를 진안읍에, 김정두 세무사를 용담면 등 면단위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등의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모(83세 독거노인)씨의 경우, 2003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매각하면서 1,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안군

에 전화로 구제방법을 호소했다.

이에 마을세무사를 연결 상담 후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전액 감면 받았다.

세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차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상담도 가능하며, 추후 '찾아가는 마을변호사'와 연계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대행은 무료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읍면사회보장협 연합교육

무주군은 8일 천치가든에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정은) 연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황정수 위원장(무주군수)과 전선자 위원장을 비롯한 읍면협의체 위원들과 읍면장 및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017년 달라진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투게더관상 나눔문화재단의 강위원 상임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표협의체 위원)로부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위원의 역할, △홍보와 기부·후원 등의 활동, △선진지역의 활동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아파트 공동체 오리엔테이션' 실시

완주군은 올 상반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된 79개 공동체 대표, 총무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1,2부로 나누어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1부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의 공동체 특강, 소통 간담회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공동체 보조금 회계교육, 군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아파트와 마을 공동체 간 도·농 교류사업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진행됐다.

군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도·농 교류사업을 설명하고 도농교류 협의회 참여를 독려했다.

도·농교류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역창업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이장협의회가 권역별로 한데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동체 축제를 열게 된다.

한편 2017년도 상반기 아파트 공동체 활동사업(프로그램)에 선정된 79개 공동체는 3월부터 6월까지 공동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무풍면 울평지구 183필지

무주군은 무풍면 울평지구(무풍면 지성리 1번지 일원) 183필지(2017년도 사업지구) 30만 8,610㎡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전산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2030년) 국책사업으로, 무주군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고 필지 조사와 경계 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부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평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장구를 완료했으며 지난날 24일에는 전북도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은 바 있다.

또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의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무주군은 무풍면 울평지구(무풍면 지성리 1번지 일원) 183필지(2017년도 사업지구) 30만 8,610㎡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쳐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규규 지적담당은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주민설명 자료로 활용하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하는 등 토지소유자 간 경계 결정을 협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하고 스마트한 지적구축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월 중순부터

장수군은 저소득가구와 자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3개 사업으로, LH공사에 위탁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 관내 자활기업에 위탁, 진행되는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다.

LH에 위탁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로 자기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경보수는 최대 350만원, 중보수는 최대 650만원, 대보수는 최대 950만원까지 주

택수리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관내 자활기업에 위탁하는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동당 최대 600만원까지 주택수리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동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3월초 위·수탁 계약을 체결, 3월 중순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선유지급여사업에는 43동 대상으로 2억 7,000만원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는 55동 대상으로 3억 3,000만원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3동 대상으로 1,100만원을 지원, 총 6억1,100만원을 주거편의 지원사업 예산으로 투입해 주택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의결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3월 8일 임시회를 열고 '2017년 청사진집행계획 운영계획 1차 변경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장수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이회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

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

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의회 사무직원에게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자급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적극 나서

진안군은 관광객 유치와 대외적 인지도를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가 2017년을 '전북 방문의 해'로 지정해 전북관광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에 따라 진안군도 지난날 24일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전북SNS관광기자단 20여 명을 초청하여, 진안의 관광명소를 탐방하고 온라인상에 외국어로 포스팅함으로써 해외 관광마케팅에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제관광박람회(Matta Fair, 2017. 3. 17~19)와 인도네시아 관광설명회(2017. 3. 20~21)에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참가할 예정으로 해외관광마케팅 분야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 진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진안 마이산 시티투어'는 수도권 지역 관광객을 진안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마이산과 가위박물관을 탐방하고 지역상가에서 식사를 하고 소풍하도록 코스로 구성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이항로 진안군수는 8일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안전대진단은 토사재해의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재해위험이 있는 교량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재해 사전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단기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안별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